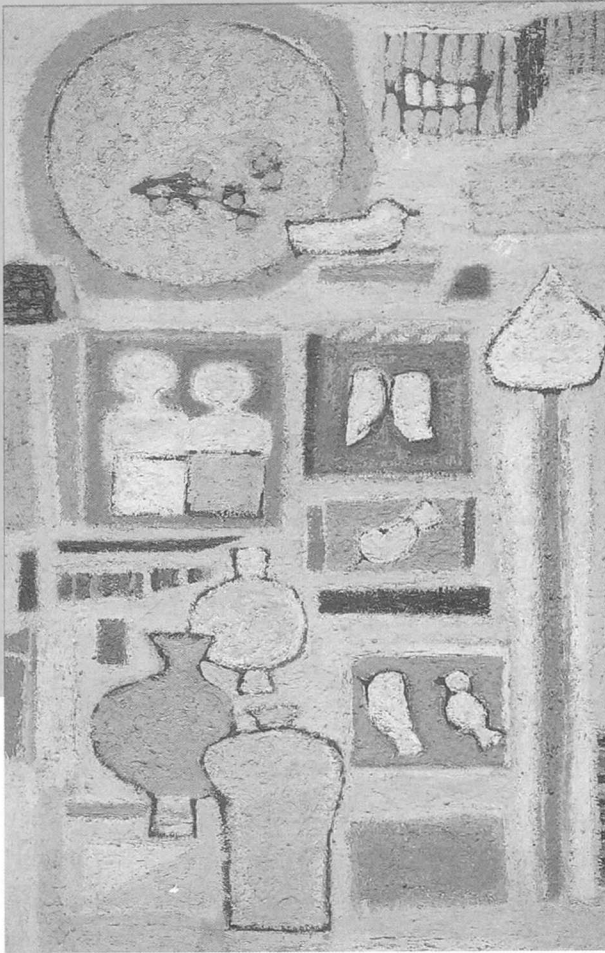


서정시를 그린 듯한 김환기의 그림

김환기 25주기 추모전 '백자송'

신항섭 | 미술평론가

문학으로부터 자유로운 예술이 있을까.
언뜻 생각하면 연극이나 영화 정도면 몰라도
미술이나 음악 춤 사진 건축 공예 등은
문학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듯하다.
그렇다고 해서 과연 이들 예술 장르가
문학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까.



김환기, 정원, 1959.
캔버스 위에 유채, 100×65.1cm

미술·음악·춤·사진·건축·공예에서는 문학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바가 없다. 미술은 보여지는 사실을 재현하거나 상상·감정·의식 및 무의식 세계를 표현한다. 하지만 그림에는 주제로서의 내용, 즉 문학적인 구성이라는 형식적인 질서가 필요하고 서정적인 측면에 이르면 역시 문학과 같은 형식의 서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게 된다. 음악은 감정의 세계만을 표현하는 것 같지만 표제음악이라든가 오페라와 성악곡 등에서는 문학적인 형식을 필요로 한다.

김환기가 발견한 문학적 향취

이처럼 문학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 장르의 예술에 관여한다. 이같은 사실을 간과하지 못하면 그 예술은 내용이 빈약한 단순한 형식주의에 머물게 된다. 미술에서 명화로 일컬어지는 작품의 경우 대부분 문학적인 향기가 짙다. 문학적인 모티브를 취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순수미를 추구하는 작품도 마찬가지로. 문학이 살아 있어야 예술적인 가치로서의 그 내용이 단단해진다.

우리가 수화 김환기의 작품에서 감지하는 문학적인 향취는 순수문학의 이상적인 향취와 다르지 않다. 올해는 수화가 이승을 떠난 지 25주년이 되는 해다. 그래서 환기미술관에서는 5월 4일부터 7월 4일까지 25주기 추모전으로 '백자송'을 마련, 한국을 대표하는 진정한 모더니스트의 조형적인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는 기회를 가졌다. '백자송'이라는 전시명칭이 시사하듯 수화는 평생 조선백자의 아름다움을 찬미했다. 그는 "나는 단원이나 혜원에게서 배운 것이 없다. 나는 조형과 미와 민족을 우리 도자기에서 배웠다. 지금도 내 교과서는 바로 우리 도자기일런지 모른다"고 고백했다. 그는 통틀어 도자기라고 했지만 개인적인 콜렉션을 보면 백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는 백자를 통해 조형의 감각을 일깨웠고 민족적인 정서를 체득하게 됐다. 순수추상으로 들어서기 이전까지 그의 작품 곳곳에서 드러나는 도자기 이미지는 그 선에 대한 이해와 찬미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 수화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기막히게 아름답고 세련된 선의 비밀이 바로

우리의 도자기에 있다는 고백이야말로 그 조형의 자생성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이런 향취는 수화의 그림에서 더하다. 구성적인 이미지의 작품에서 특히 강렬한 문학성이 간취된다. 시 한 소절을 그림에 직접 써넣은 작품이 있을 정도다. 그의 그림에 담긴 문학성은 서정미로 압축된다. 더러는 서술적인 내용도 있지만, 한 수의 아름다운 서정시를 읽는 듯한 감정에 사로잡히는 작품이 많다. 가슴이 아리도록 슬픈 미감의 표현이라고 할까. 서정적인 정취로 물들여지는 간결한 이미지의 작품을 보면 문인화를 보는 것만 같다. 어쩌면 그의 그림은 서양적인 조형언어로 그려낸 이 시대의 문인화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른다.

이 시대의 문인화

그의 작품은 이처럼 우리의 도자기에 반영된 민족적인 정서를 매개로 해 그림의 문학화를 실현한 것이다. 실제로 그의 단편적인 창작 노트는 정서와 사상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주는 훌륭한 산문이다. 그림에 문학을 불러들이고 문학에 회화적인 이미지를 그려넣는 그의 감성은 예술지상주의의 그 순수성을 일깨워준다.●